



# KOCHAM ECONOMIC REPORT

## 제 2013-43 호

2013년 10월 10일(목)

### 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10월 첫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전망치 상회
- 2) 엘런 연준(FRB) 의장 지명자, 경기부양 지속 시사
- 3) IMF, 미연준(FRB)의 성급한 출구 전략에 대해 경고

### 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유럽중앙은행(ECB),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
- 2) 영란은행(BOE), 기준금리 동결 결정
- 3) 상위 1% 부자, 세계의 부 절반 차지

#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전 세계 PC 출하량, 전년대비 7.6% 감소
- 2) 아시아 모바일 메신저, 페이스북·트위터 위협
- 3) 뉴욕 명물 '옐로 캡' 선진화 계획 제동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### 1) 10월 첫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전망치 상회

- 지난 10월10일(현지시간) 미노동부는 10월 첫째주(9/30-10/5)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7만4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
  - 이는 시장 전망치 31만 건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로 미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
- 주요 급증 요인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청구 접수과정에 전산혼란이 일어난 것과 정부 폐쇄로 기업 해고가 증가했기 때문
- 한편, 지속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9월 마지막 주 29만2천만 건수에서 29만1천 건으로 소폭 감소

### 2) 엘런 연준(FRB) 의장 지명자, 경기부양 지속 시사

- 지난 10월9일(현지시간) 재닛 엘런 연준(FRB)의장 지명자는 미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력을 더 강화하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
  - 이는 양적완화를 통한 시중 유동성 확대나 초저금리 기조 유지 등 종전 연준(FRB)의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
- 엘런 지명자는 미국의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고 경제는 더 강해졌으며 금융 시스템도 건전해졌다고 평가
  - 그러나 아직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며 연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

### 3) IMF, 미연준(FRB)의 성급한 출구 전략에 대해 경고

- 지난 10월9일(현지시간) 국제통화기금(IMF)은 연준(FRB)이 출구전략에 성급하게 돌입할 경우 글로벌 채권시장에 약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
  - 주식 및 부동산, 외환시장에서의 손실 규모까지 감안할 경우 더욱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
- 또한 IMF는 금리 급등이 특히 신흥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언급
  - 양적완화 축소 시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던 지난 5월말 신흥시장이 급격한 자본 이탈에 매우 취약함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갑작스런 출구전략이 신흥시장의 유동성 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
  -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가 재정안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계 개혁을 필수적으로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### 1) 유럽중앙은행(ECB),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

- 지난 10월10일(현지시간) 유럽중앙은행(ECB)은 중국인민은행(PBOC)과 450억 유로 규모의 3년짜리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
  - 이는 유로존 유동성 강화를 지원, 역내 은행들이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
  - 또한 유로 지역과 중국 사이의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점과 금융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이 늘어난 것도 협정 체결의 배경
-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6월 영국의 영란은행(BOE)과 20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

## 2) 영란은행(BOE), 기준금리 동결 결정

- 지난 10월10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영란은행(BOE) 통화정책 위원들이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현행 0.5%인 3,750억 파운드로 동결했다고 보도
  - 이는 영국 경제가 경기회복 모멘텀 신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산매입 규모도 현 수준을 유지기로 한 것
- 전문가들은 영국의 실업률이 7%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긴축금융을 시도치 않을 것으로 예상

## 3) 상위 1% 부자, 세계의 부 절반 차지

- 지난 10월10일(현지시간)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(CS)는 ‘2013 세계 부 보고서’에서 상위 1%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46%를, 상위 10% 부자들이 86%를 보유하는 등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
- 세계 자산총액은 지난 10년간 68%가 증가한 241조 달러, 세계 1인당 자산 보유액은 평균 5만1,600달러에 달함
  - 세계 1인당 자산 보유액은 스위스가 51만3,000달러로 가장 많으며 호주, 노르웨이, 룩셈부르크가 뒤를 이음
  - 반면,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보유 자산이 1만달러가 되지 않음
- 러시아의 경우 110명의 거부가 전체 자산의 35%를 차지, 이들이 소유한 자산 총액은 4,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
  - 이는 소련 붕괴 후 알짜 재산을 경제계의 ‘과두재벌’이 차지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들의 충성을 담보로 부의 유지를 용인했기 때문
- 한편, 한국의 백만장자는 모두 25만1천 명으로 2018년에는 79% 늘어난 44만9천 명이 될 것으로 예측

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### 1) 전 세계 PC 출하량, 전년대비 7.6% 감소

- 지난 10월9일(현지시간)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3분기 전 세계 PC 출하대수가 8,160만9천 대로 전년동기비 7.6% 감소했다고 발표
  - 전년동기비 전 세계 PC 출하량은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, PC 사양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다만 기업용 PC 수요의 회복으로 3/4분기 감소폭은 전 분기의 11.4%와 시장 예상치 9.5%보다는 완만한 감소세를 기록
- 업체별 점유율은 중국 레노버 그룹이 전년 동기 대비 2.2% 상승한 17.3%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선두를 유지
  - 미국의 휴렛팩커드(HP)가 17.1%의 점유율로 2위, 델은 11.7%로 3위를 기록
- 전문가들은 PC 판매 둔화가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, 스마트폰과 태블릿기기 등의 판매 증가 여파로 PC 시장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고 분석

### 2) 아시아 모바일 메신저, 페이스북·트위터 위협

- 지난 10월 9일(현지시간) WSJ은 중국의 '위챗'과 일본의 '라인'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'왓츠앱', '페이스북', '트위터'를 위협하며 실리콘밸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보도
  - 위챗은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개발, 중국 내 회원 수가 3억 명, 중국 밖에서도 1억 명을 확보
  - 라인도 네이버 일본법인 소유로 전 세계 2억5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, 이중 80%는 일본 밖의 회원들인 것으로 나타남

- 위챗과 라인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데에는 모바일 메신저가 유료 서비스로 제공됐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대신할 대안으로 각광받았기 때문
- 한편, 한국의 '카카오톡'도 빠른 성장세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, 현재 약 1억1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

### 3) 뉴욕 명물 '옐로 캡' 선진화 계획 제동

- 지난 10월9일(현지시간) 뉴욕 연방대법원은 뉴욕 택시 리무진 위원회(TLC)가 택시 소유자들에게 특정 차량을 택시로 구매하도록 한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
  -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2011년에 뉴욕의 명물인 '옐로캡' 택시를 현대화하기 위해 1만3,237대에 달하는 뉴욕시의 택시를 미니밴으로 교체하겠다고 일본 닛산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
  - 반면, 택시 회사들은 연료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, 2013년 5월 법원은 택시 회사의 손을 들어줌
- 이에 뉴욕시는 지난 6월 닛산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할 때까지 이번 계획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, 택시회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7월에 다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
  - 그 결과 법원은 택시 구입 계약을 체결한 뉴욕시 택시·리무진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을 했다고 계약 무효를 판결
- 한편, 뉴욕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, 택시·리무진 위원회 역시 미래의 택시 계획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힘